

***제3세대 뮤지엄 건축의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useum's Typology on the Third Generation of Museum Architecture

이성훈* / Lee, Sung-Hoon
박용환** / Park, Yong-Hwan

Abstract

Although the history of the contemporary museum architecture is relatively short, the concept of its existence has changed owing to its openness to the spectators at large. Within the short period of time, it has developed into a multi functional architecture with eduinfortainment function for the general publics in concert of the changes of its social activities in addition to its innate function as a museum to meet the intellectual desires of the spectators.

Therefore, this study looks into how to suffice the ever changing intellectual desires of the spectators and the various spatial correspondence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roles of the museum with purpose to present the materials of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generation museum architecture, which shows diversifying propensity, by means of an analyt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generation museum architecture with confidence in mind that such materials are needed in the early planning stage.

The chapter 2 divides the museum architecture into three generations for a comparative analytical study and presents the three classification standards thru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the museum typological class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60 selective art museums have been classified by their typological patterns. The chapter 3 shows the result of the typological space classification of the 60 art museums through an analyzation on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interrelations of them.

Such study is considered to furnish important measur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ubstance of the museum architectur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judged to play an instrumental role for the theoretical system of the communication function and classification required in the early designing stage as well as to play an educational role important as the designing guide line.

키워드 : 뮤지엄 건축, 유형, 공간구성

Keywords : Museum Architecture, Typology, Space Organization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매우 느린 변화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유형은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결과물로서 전체 사회의 가치관에 의존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짓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의 연속성을 확립시켜 준다.

유형이라는 범주화작업은 인간이 막대한 양의 지식을 다양한 정보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수단으로서 각 범주들의 특

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속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유형을 통한 디자인 과정은 과거의 건축물에서 추출된 유형학적 건축 구성요소(형식적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들)를 결합하는 과정이 되며, 전체 조직의 기본 원칙을 형성하는 개념적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¹⁾ 또한 유형적 접근 방식은 건축 형태의 보편적 원칙을 탐색하기 때문에 건축의 근원적 이미지를 추출하는 과정²⁾이라 할 수 있다.

건축유형의 개념은 건축의 형태가 환경적·역사적·문화적

* 이사,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공학박사

*** 본 연구는 2007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

1)Ungers, O. M., Architecture as Theme, Electa/Rizzoli, NY, 1982, p.23
2)Argan, G. C., On the Typolog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33, 1964, pp.564-565

특징과 결부되어 표현된 것으로서, 건축연구에서의 유형화 작업은 건축물의 유형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 제공 및 디자인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일반인과 디자이너 사이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며, 초기설계단계에서 의사전달 기능과 분류의 이론적 체계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되는 근대적 의미의 뮤지엄³⁾ 건축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건축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 다양해지는 관람자의 지적욕구의 충족 및 뮤지엄 기능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 그 존재 개념을 달리 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여 왔다. 즉 뮤지엄은 단순히 예술가치가 있는 자료나 작품을 수집하여 보존, 전시한다는 수동적인 개념으로부터 시민에게 개방되는 대중문화의 장소로서 시민교육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확장⁴⁾되면서 연구 및 대중 교육정보위락(eduinfainment)을 수행하는 역할을 포함하는 다기능적 건축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뮤지엄 건축은 특히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뮤지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건물의 외관에서부터 소장품의 종류나 내부 공간의 구조적 특성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의 폭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뮤지엄 건축의 초기 기획단계에서 필요한 공간구성에 따른 뮤지엄 건축, 특히 다양한 공간적 대응을 보이며 다원화 성향의 제3세대 뮤지엄 건축(현대 뮤지엄 건축시기)⁵⁾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뮤지엄 건축의 본질을 이해하는 주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뮤지엄 공간구성의 기본 틀 설정 및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가 실제 초기기획설계단계에 필요한 유형별 특성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가 있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유형별 범위로서는 동일한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공간구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뮤지엄 형식보다 다양한 공간구성을 보이며 가장 많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품 위주의 미술관(art museum)으로 한정하였고, 둘째, 공간적 범위는 방문자의 입장에서 공공영역(public zone)과 비공공영역(non-public zone)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관람객들의 진출입이 가능한 공공영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한다. 셋째, 뮤지엄 내의 공공프로그램(public program)이라는 소프트웨어적 변화를 통해 기존 뮤지엄 건축의 공간구성을 포함한 하드웨어적 요소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Neue Staatsgalerie, James Stirling, 1977-1984)을 기점으로 공공뮤지엄(public museum)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시대적 범위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는 뮤지엄을 '제3세대-현대 뮤지엄 건축시기'로 한정하여 총 60개의 뮤지엄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형 분석대상의 선정기준은 첫째, 1980년대 이후 주요한 경향을 주도하며 뮤지엄 건축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뮤지엄, 둘째, 시대별 변화와 통시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유형별 해석에 유용한 뮤지엄, 셋째, 뮤지엄 관련 전문도서 및 단행본과 건축전문잡지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뮤지엄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관련문헌조사를 통해 뮤지엄의 개념 변천과정 및 각 세대별 공간구성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국내외 조사대상 뮤지엄을 선정하여 건축개요, 설계개념, 각종 도면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각 뮤지엄에 대한 공간구성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조사대상 뮤지엄은 가급적 직접 현장 방문하여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공간활용 및 이용실태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철저한 관련문헌조사뿐 아니라 방문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뮤지엄의 개념변천 및 공간구성특성과 유형 분류 기준 제시

2.1. 뮤지엄의 시대별 개념변천 및 특성

뮤지엄 건축의 시대별 개념변천 및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2. 뮤지엄의 세대구분 및 공간구성 특성

현대 뮤지엄 건축은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뮤지엄 건축으로서 다양한 외관(양식)만큼이나 다양한 공간구성상의 변화와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전시공간에 기본을 둔 전통적 뮤지엄 체계를 넘어서 프로그램의 복잡화 양상을 띠며, 기념물로서, 예술의 저장고로서, 그리고 문화 및 교육정보위락의 장(場)으로

3) 뮤지엄이란 일반적으로 유물보존을 주목적으로 하는 박물관과 예술품을 전시·보존하는 미술관(art museum)을 광역적으로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등한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공간구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예술품 위주의 미술관을 지칭한다.

4) 김용승, 미술관의 전시공간의 변천사, 건축세계, 1997년 4월호, p.80

5)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까지를 '제1세대-고전적 뮤지엄 건축시기', 20세기 초반부터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이전까지를 '제2세대-근대 뮤지엄 건축시기', 신관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제3세대-현대 뮤지엄 건축시기'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표 1> 뮤지엄의 시대적 개념변천 및 특성 요약

시대구분	개념변천 및 특성
17세기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세기 이전: 중세 유럽의 성직자와 귀족들이 대도시 부유층의 집전실과 교회, 궁전 등에 그 시대 가장 유명한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 17세기 이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한 방에 전시하여 지성인이나 외교관·귀족 등 특권층만 관람
18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먼저 로마의 카피톨리노 뮤지엄이 설립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1759년 브리타니시 뮤지엄과 1793년 루브르 뮤지엄 설립 이를 계기로 유럽 전 지역에 '뮤지엄 시대'가 열려 뮤지엄 건축 자체가 그 시대의 위대한 작품이 되기 시작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신고전주의의 건축적 영향 계몽주의 사조가 휩쓸었던 시기로 19세기에는 본격적인 '뮤지엄 시대'라 할 만큼 수많은 뮤지엄이 설립되어 그 도시의 자부심을 나타내게 됨
20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격적인 뮤지엄 건축은 1950년대 경제회복기 이후 뮤지엄 건축 자체가 예술작품인 시대가 도래, 따라서 뮤지엄을 순례하는 관광이 시작되고, 컬렉션이 전 세계를 순회하는 행사도 성행하기 시작 전쟁의 근분형 이후 3대 거장(라이트, 꼬르뷔제, 미스)의 작품이 뮤지엄 건축 디자인을 구체화시키고, 3세대에 뮤지엄 건축에 영향을 줌 1970년대 말과 80년대 후기모더니즘 이후 도시활성화를 위한 많은 뮤지엄들이 개관하기 시작. (예: 제임스 스티링의 슈투트가르트 뮤지엄 신관 (Neue Staatsgalerie, 1977-81)을 비롯하여 프랑크푸르트의 샤우마인카이 뮤지엄 거리(River Bank of Schaumainkai, Frankfurt/M) 등) 1990년대 이후로는 뮤지엄 건축 양식의 공통분모를 하나로 찾기가 어려운 '다원의 시기'를 맞아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건축 다음으로 신역사주의와 하이테크 표현주의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는 새로운 경향이 두드러짐. 즉, 20세기의 다양한 다원주의 경향이 뮤지엄 건축의 공간구성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줌.
21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품과 조화를 이루는 관능적인 지각과 비관적인 사유를 위한 뮤지엄 건축을 창조할 과제를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관람객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모색이 요구되어짐. 또한 뮤지엄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공공장소로서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위락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기획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표 2> 뮤지엄의 세대구분 및 공간특성

세대구분	공간 특성
제1세대/ 고전적 뮤지엄 건축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 뮤지엄의 원형이 되는 쉰켈(Karl F. Schinkel)의 알테스 뮤지엄을 비롯한 고전적 뮤지엄 건축시기 평면적으로는 대칭형이며, 대공간과 중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 다양한 전시공간구성 방법의 제시 및 천창에 의한 자연광 유입이 특징으로 현대까지 영향을 미침
제2세대/ 근대 뮤지엄 건축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라이트, 꼬르뷔제, 미스 등이 전시와 운영체계의 근대화와 새로운 공간구성 개념의 시도 및 범용적 공간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시기 또한 국제주의나 구조주의의 미학을 근거로 하는 표현경향의 시기 따라서 뮤지엄의 전문화, 세분화 양상에 따라 전문 뮤지엄들이 등장하기 시작
제3세대/ 현대 뮤지엄 건축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기 중반 이후의 뮤지엄 건축시기로 클래식 모더니즘, 문맥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하이테크 건축 등의 다채로운 표현의 경향을 보임 다양한 외관(양식) 만큼이나 다양한 전시공간구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시기 공간구성 방식에서 '중심성의 수용과 부정' 개념이 지속적으로 대립되며 관람객에게 적극적 다양한 공간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시공간구성이 두드러짐

서 뮤지엄의 도시 내(內)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needs) 및 역할증대에 따라 뮤지엄 건축은 특히, 대공간(major space)과 중정, 뮤지엄 교육 및 지원시설, 전시공간구성, 동선체계, 채광형식 등에서 다양한 건축적·

공간적 대응을 보이면서 진화되고 있다.

2.3. 뮤지엄 건축 유형분류 선행연구 및 분류기준 제시

국내에서 뮤지엄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뮤지엄 건축의 본격적인 건설도 1970년대에 들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서상우의 학위논문인 '현대의 박물관 건축에 관한 계획학적 연구(1988)'에서 제시한 현대 박물관의 개념 및 역할의 변화, 박물관 건축의 기본체계 연구 및 건축계획학적 제안을 시발로 뮤지엄 건축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좀 더 구체화·세분화된 주제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공간구조는 주로 전시와 관람을 위한 공적영역(public zone)⁶⁾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외에서 현재까지의 뮤지엄 공간구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분류가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한 기준점에 의거한 분석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동시에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흐름에 맞춰 국내외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많은 뮤지엄 건축의 주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뮤지엄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외국사례의 경우 주로 이분법적(二分法的) 분류로서 상대적인 차이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비교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대 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공간구조의 다양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으며, 부분적인 설명은 가능하나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계량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들의 분류지표 및 분류유형을 분석하면, 뮤지엄 건축 유형분류는 첫째, 공간구성 형식, 특히 평면구성 형식에 의한 분류체계가 가장 많았고, 이는 다시 '중심성 수용'과 '중심성 부정'이란 두 가지의 이분법적 명제에 의한 정형화된 유형분류가 가장 많았으며, 둘째, 평면구성과 전시공간 구성방법 등에 의한 전시공간의 유형분류로서 지엽적 영역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경우이고, 셋째, 전시경로 및 관람객 움직임 등에 따른 동선체계에 의한 유형분류로서 대부분의 분류체계가 전체공간과의 유기적 연계를 기초로 한 종합적 분류체계에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다소 직관적이고 지엽적인 분류체계로는 급변하는 현대적 추세와 다양한 공간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원화되어 가는 뮤지엄 건축 공간구성의 경향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 이를 위해 뮤지엄 건축 유형분류 기준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평면구성 형식', '전시공간 구성방법',

6) 뮤지엄 건축의 영역별 성격은 유물(collection)과 관람객(visitor)의 유무(有無)에 따라 구분된다. 공적영역이란 '유(有) 유물·유(有) 관람객'으로 주로 전시영역과 일부 교육공간이 해당된다.

그리고 '동선구성 체계'의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동시에 60개의 유지업에 대한 공간비교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1) 유지업의 평면구성에 따른 유형분류 기준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7)를 좀 더 세분화하여 8가지 유형(근본형, 중심홀형, 중정형, 성장형, 분리형, 분동형, 개방형, 보편형)으로 분류(8)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표 3 참조>

평면구성에 따른 유형분류 기준은 1차적 분류기준으로서 박

<표 3> 유지업 평면구성에 따른 유형분류 및 특성

유형	개념적 공간유형	유형특성
P1-1/근본형/Proto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툰다가 중심이 되고 중정을 갖는 좌우대칭의 디자인개념 Boullée, Durand, Soane 등의 고전적 디자인 영향을 받은 작품 	
P1/집중형 Center Oriente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정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성장형의 영향을 받은 작품 강력한 메이저스페이스(대공간, Major Space)가 상징적·기능적인 중심공간을 이루고 그 주위에 개별전시공간들이 에워싼 개념이 보편적 대공간은 주로 기능상 동선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상부는 전승이 개방되어 자연광유입과 더불어 상징적 공간역할 별도의 진입홀을 둔 경우와 대공간 내 약식의 진입홀을 두는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본형'의 영향으로부터 파생된 유형 진입동과는 별개의 중정이 중심공간 역할을 하며 주변에 전시공간이 배치되는 개념 선택적 관람 용이 중정은 단순히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경우와 전시공간의 전신역할을 하면서 메이저 스페이스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본형에서 벗어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성장형 공간구성 지구라트나 조개껍질외 자연에서 유추된 나선형의 연속성 전시공간개념 미래 증축을 고려한 개념 	
P2/분산형 Disperse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공간(served space)과 부수공간(servant space)이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 설비와 같은 부수공간으로부터 보호되는 주공간은 '개방형'과 같은 공간개념을 가짐 주로 칸(Louis I. Kahn)의 작품과 피아노(Renzo Piano)의 작품경향에서 찾아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구성상 중정형과 유사 규모가 크거나 자연조건 때문에 몇 개의 동(棟)으로 분산배치하는 개념 순차적으로 증축해가는 경우에 고려됨 가운데 중정은 주로 옥외공간으로 메이저 스페이스의 역할-공간구성상 중정형과 유사 선택적 관람 용이 	
P3/개방형/Open Plan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성 없이 Universal Space인 무주공간(無柱空間) 개념 기능 및 전시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전시공간구성이 가능한 형태 주로 미스 반 데 로에가 일관성있게 추구해 온 오픈플랜 해결을 위한 구조체계 	
P4/보편형/Unified Space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정이나 중심홀 없이 진입홀 또는 로비정도를 갖는 보편적 개념 	

물관 전체공간과 관련된 공간구조라 할 수 있다. 즉, 1차적 기준은 전시공간은 물론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물리적·공간적 요소에까지 시각을 전환시킴으로써 유지업 공간을 폭 넓게 인식하는 광의적 분류개념이다. 따라서 유지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공간 뿐 만 아니라 전시시설, 교육시설, 유지업 샵, 카페, 동선공간 등 일반 관람객의 접근이 가능한 영역과 수장 및 업무영역 등 일반 관람객의 접근이 통제되는 영역까지 그 공간적 범위를 포함시켜 분류한다.

(2) 유지업 전시공간구성에 따른 유형분류 기준 및 특성

유지업의 전형적인 경험이 주로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전시공간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공간까지 만을 한정하는 2차적 분류기준으로서 지엽적 분류기준이라 할 수 있다.

<표 4> 유지업 전시공간 구성에 따른 유형분류 및 특성

유형	유형별 특성	개념도
G1/홀복도형/Hall-Corridor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적 관람형식이 용이한 유형 대규모 이상의 유지업에서 조닝에 의한 전시공간을 구성할 때나 소규모 유지업에서 주로 사용 전시실과 지원시설을 분리할 경우 	
G2/연속실형/Room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적 평면구성 형식이나 연대기적 순서를 위한 전시형식에 주로 사용 강제순환형식의 동선체계형식 	
G3/개방형/Open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성없이 전시공간 전체가 개방된 free space 구조적으로 무주공간(universal space) 개념 어떤 유형의 전시도 수용가능 	
G4/복합형/Mixe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혼합되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3) 동선구성체계에 따른 유형분류 기준 및 특성

3차 분류기준은 지엽적 분류기준으로서 관람객이 한 전시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공간으로 연속적 이동을 해 가는

7)서상우는 박사학위논문 '현대의 박물관건축에 관한 계획학적 연구'에서 유형을 크게 중정형, 집약형, 오픈 플랜형, 분동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임채진의 경우는 전시실의 공간전개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통과형, 복도형, 개방형으로, 최윤경의 경우 중심성 수용 및 부정과 단속공간구조 및 연속공간구조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8)이성훈·박용환, 유지업건축에 있어서 분리형 전시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5호 통권58호, 2006. 10. pp.239-240의 <표 1> 전시공간구성 유형분류 및 특성 참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전시공간과 이동공간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응하는 배치, 구성 등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된 관람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표 5> 동선구성 체계에 따른 유형분류 및 특성

유형	유형별 특성	개념도
C1/ 강제순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적 구성형식에서 연속실형으로 전시공간이 연계된 경우 강제순환형식 불가피 극적인 전시효과를 위한 연속 	
C2/ 선택순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공간을 중심으로 개별전시공간이 에워싼 경우 선택적 관람이 용이 홀이나 복도형의 경우도 선택순환방식 용이 개방형 공간구성형식의 경우 	
C3/ 절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순환방식과 선택순환방식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경우 그룹핑의 경우 	

(4) 연면적에 따른 규모분류 기준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나 지방의 문화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맞는 뮤지엄 규모로 세분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다음의 <표 6>과 같이 규모분류체계⁹⁾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표 6> 연면적에 따른 뮤지엄 규모분류

규모	특대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극소형
면적범위 (㎡/평)	20,000 이상 (6,000)	6,000-20,000 미만 (1,800-6,000)	2,000-6,000 미만 (600-1,800)	1,000-2,000 미만 (300-600)	1,000 미만 (300)

2.4. 분석대상 뮤지엄 및 유형분류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60개의 분석대상 뮤지엄 리스트와 이를 규모 및 유형분류기준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3. 유형분류 특성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60개 분석대상 뮤지엄을 3가지 분석기준(평면구성, 전시공간구성, 동선체계별)에 의해 유형분류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60개 뮤지엄 유형분류 통계표

분야구분	분류유형	해당 뮤지엄 번호	합계	
평면구성	P1 집중형	P1-1 근본형	-	0
		P1-2 중심홀형	2, 3, 8, 11, 13, 15, 24, 25, 27, 32, 37, 39, 40, 41, 42, 44, 45, 47, 48, 54, 58, 59, 60	23
		P1-3 중정형	4, 19, 52	3
		P1-4 성장형	-	0
	P2 분산형	P2-1 분리형	10, 34, 36, 57	4
		P2-2 분동형	30, 35, 51	3
	P3	개방형	17, 31	2
	P4	보편형	1, 5, 6, 7, 9, 12, 14, 16, 18, 20, 21, 22, 23, 26, 28, 29, 33, 38, 43, 46, 49, 50, 53, 55, 56	25
전시공간구성	G1	홀·복도형	8, 10, 15, 16, 19, 24, 28, 35, 36, 46, 58,	11
	G2	연속실형	2, 4, 7, 9, 12, 14, 18, 22, 25, 27, 34, 37, 38, 40, 44, 45, 56, 57,	18
	G3	개방형	17, 21, 23, 31, 50, 51, 59,	7
	G4	복합형	1, 3, 5, 6, 11, 13, 20, 26, 29, 30, 32, 33, 39, 41, 42, 43, 47, 48, 49, 52, 53, 54, 55,	24
동선체계	C1	강제순환방식	2, 4, 7, 9, 12, 14, 18, 19, 22, 25, 26, 27, 29, 33, 34, 37, 38, 40, 43, 44, 45, 51, 56,	23
	C2	선택순환방식	1, 3, 6, 10, 11, 15, 17, 20, 21, 23, 24, 28, 30, 31, 32, 35, 39, 41, 42, 46, 48, 49, 50, 52, 53, 54, 57, 58, 59, 60	30
	C3	절충형	5, 8, 13, 16, 36, 47, 55,	7

3.1. 뮤지엄 평면구성에 따른 유형분석

<표 8>의 뮤지엄 평면구성에 따른 유형분류에서는 집중형(P1, 26개관)과 보편형(P4, 25개관)인 뮤지엄 수가 전체의 85%로 나타났으며, 집중형 중에서도 중심홀형(P1-2)이 총 23개관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중정형(P1-3, 3개관)이 그 뒤를 잇고 있으나, 근본형(P1-1)과 성장형(P1-4)의 뮤지엄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본형이 가지고 있는 로툰다 중심의 좌우대칭적인 평면구성보다는 상징적인 대공간(중심홀형) 또는 진입홀(보편형)을 두어 공간의 위계질서(hierarchy)를 유지하면서 보다 자유로운 평면구성을 통해 다양한 공간적 경험과 학습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3세대 뮤지엄의 공간구성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근본형의 중심성 개념을 기초로 파생된 꼬리뿔체의 성장형은 근본형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는 그 가치가 인정되나 실제 건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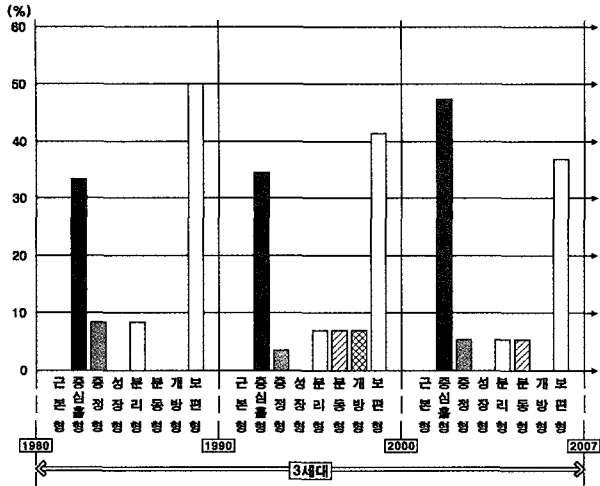
<그림 8>은 10년 주기로 본 년대별 뮤지엄 수에 따른 유형 분포도(%)로서, '보편형'과 '중심홀형'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보편형'보다 '중심홀형'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관람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대칭적 공간구성에서 벗어난 다양한 공간구성과

9)박석수·서상우, 뮤지엄 건축의 규모계획을 위한 기초적 연구; 면적배분율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5권, 1995. 04, p.97

<표 7> 분석대상 뮤지엄(60개관) 유형분류 - 규모별/ 유형분류기준별

번호	뮤지엄	건축가	규모 / 층수	규모 / 면적	규모별				유형분류기준별		
					특대	대	중	소	평면 구성	전시공간 구성	동선 구성
1	Tamayo Inter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Mexico DF, 1960-81	A. Zabudovsky 외	지상2층/지하1층	연면적:4,584, 전사:2,479			○		보편형	복합형	선택순환
2	Neue Pinakothek, Munchen, 1961	A. F. von Branca	지상1층/지하2층	연면적:11,500, 전사:7,250		○			중심홀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3	High Museum, Atlanta, USA, 1963	Richard Meier	지상5층/지하1층	연면적:12,542, 전사:4,274			○		중심홀형	복합형	선택순환
4	Neue Staatsgalerie, Stuttgart, 1977-1984	J. Stirling & M. Wilford	지상2층/지하1층	연면적:13,000, 전사:6,800			○		중정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5	Museum of Applied Art, Frankfurt, 1979-1985	Richard Meier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9,925, 전사:4,810			○		보편형	복합형	절충형
6	Le Musée d'Orsay, Paris, France, 1978-86	Pierre Colboc 외 2인/ Gae Aulenti(전시)	지상5층	연면적:57,400, 전사:16,853 기획전시:1,837		○			보편형	복합형	선택순환
7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A, USA, 1961-1966	Arata Isozaki	지상4층/지하2층	연면적:5,110, 전사:2,276			○		보편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8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1982-86	김태수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34,006, 전사:14,143		○			중심홀형	홀복도형	절충형
9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1966	Fumihiko Maki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9,761, 전사:2,604			○		보편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10	Menil Collection & Museum, Houston, USA, 1961-1967	Renzo Piano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9,337, 전사:4,412			○		분리형	홀복도형	선택순환
11	Yokohama Museum of Art, Japan, 1963-1969	Kenzo Tange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26,829		○			중심홀형	복합형	선택순환
12	Vitra Design Museum, 1967-1969	Frank O. Gehry	지상2층	전사:743				○	보편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13	Museum fur Moderne Kunst, Frankfurt, Germany 1983-1991	Hans Hollein	지상3층/지하2층	연면적:9,100, 전사:4,150			○		중심홀형	복합형	절충형
14	Sainsbury Wing, London, UK, 1986-1991	Robert Venturi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15,810, 전사:4,180			○		보편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15	Contemporary Art Museum, Monterrey, Mexico, 1989-91	Ricardo Legorreta	지상3층						중심홀형	홀복도형	선택순환
16	Seattle Art Museum, Seattle, 1990-91	R. Venturi & D. Brown	지상5층	연면적:14,214			○		보편형	홀복도형	절충형
17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rugame City, Japan, 1991	Yoshio Taniguchi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8,000, 건축:3,603			○		개방형	개방형	선택순환
18	Kunst Museum Bonn, Germany, 1984-1992	Axel Schultes	지상2층/지하1층	연면적:12,000, 전사:4,700			○		보편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19	Jawahar Kala Kendra Art Center, Jaipur, India, 1986-92	Charles Correa	지상2층	연면적:9,000				○	중정형	홀복도형	강제순환
20	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Naoshima, 1988-92	Tadao Ando	지상2층/지하1층	본관:3,643, 별관:597				○	보편형	복합형	선택순환
21	Kunsthal Temporary Art Center, Rotterdam, 1967-1992	Rem Koolhaas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8,000, 전사:3,000			○		보편형	개방형	선택순환
22	Frederick R. Weisman Museum, Minneapolis, 1993	Frank O. Gehry	지상3층	연면적(중축분): 1,022			○		보편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23	Kunst Museum, Wolfsburg, Germany, 1990-1993	Schweger+Partner	지상2층/지하2층	연면적:8,510, 전사:3,500			○		보편형	개방형	선택순환
24	Museum of Contemporary Art, Barcelona, 1967-1995	Richard Meier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13,800, 전사:5,087			○		중심홀형	홀복도형	선택순환
25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SF, USA, 1990-1995	Mario Botta	지상5층/지하1층	연면적:18,580, 전사:4,645			○		중심홀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26	Toyota Municipal Museum of Art, Toyota, Japan, 1993-1995	Yoshio Taniguchi	지상3층/지하2층	연면적:11,238, 건축:6,194			○		보편형	복합형	강제순환
27	Gallery of Contemporary Art, Hamburg, Germany, 1986-1996	Oswald Mathis Ungers	지상4층/지하2층	연면적:10,460, 전사:5,600			○		중심홀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28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USA, 1991-1996	Josef Paul Kleihues	지상5층	연면적:13,000, 전사:3,600			○		보편형	홀복도형	선택순환
29	Jean Tinguely Museum, Basel, Swiss, 1993-1996	Mario Botta	지상3층/지하2층	연면적:6,057, 전사:2,866			○		보편형	복합형	강제순환
30	J. Paul Getty Center, LA, USA, 1984-1997	Richard Meier	지상2층/지하1층	연면적:37,000, 전세면적:87,800		○			분동형	복합형	선택순환
31	Museum of Fine Arts, Bregenz, Austria, 1990-1997	Peter Zumthor	지상4층/지하2층	연면적:3,340, 전사:1,390				○	개방형	개방형	선택순환
32	Guggenheim Museum, Bilbao, 1991-1997	Frank O. Gehry	지상4층	연면적:24,290, 전사:10,560		○			중심홀형	복합형	선택순환
33	Gemaldgalerie, Berlin-Tiergarten, German, 1991-97	Hilmer & Sattler	지상2층	연면적:24,000, 전사:7,000		○			보편형	복합형	강제순환
34	Beyeler Foundation Museum, Riehen, swiss, 1993-97	Renzo Piano	지상1층/지하1층	연면적:5,490, 전사:2,710				○	분리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35	Miho Museum, Near Kyoto, Japan, 1994-1997	I. M. Pei	남관:1/1, 북관:2	연면적:17,429, 전사:7,429			○		분동형	홀복도형	선택순환
36	Museum of Modern Art in Stockholm, Stockholm, 1991-1998	Rafael Moneo	지상4층	연면적:15,000, 전사:5,000			○		분리형	홀복도형	절충형
37	Ki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Helsinki, Finland, 1998	Steven Holl	지상5층	연면적:12,000, 전사:3,600			○		중심홀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38	Gallery of Horyuji Treasures, Tokyo, 1999	Yoshio Taniguchi	지상3층	연면적:4,031				○	보편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39	New Tate Gallery of Modern Art, London, UK, 1994-2000	Herzog & de Meuron	지상7층	연면적:34,547, 전사:11,700		○			중심홀형	복합형	선택순환
40	Museum of Fine Art, Houston, USA, 2000	Rafael Moneo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17,786, 전사:7,897			○		중심홀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41	Seoul Metropolitan Museum of Art, Seoul, 1998-2000	박승 외	지상3층/지하2층	연면적:13,434			○		중심홀형	복합형	선택순환
42	Milwaukee Museum Extension, Milwaukee, 1994-2001	S. Calatrava	지상2층/지하1층	연면적:13,200, 전사:1,500			○		중심홀형	복합형	선택순환
43	American Folk Art Museum, New York, 2001	T. Williams & B. Tsien	지상6층/지하2층	연면적:2,787				○	보편형	복합형	강제순환
44	Museum of Modern Art Ludwig Foundation, Vienna, Austria, 2001	Ortner & Ortner	지상4층/지하2층	연면적:14,000, 전사:4,800			○		중심홀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45	Leopold Museum, Vienna, Austria, 2001	Ortner & Ortner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12,600, 전사:5,400			○		중심홀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46	Amon Carter Museum, Forth Worth, Texas, 1961, 2001 재개관	P. Johnson, Alan Ritchie	지상2층	연면적:8,361			○		보편형	홀복도형	선택순환
47	Modern Art Museum of Fort Worth, Fort Worth, USA, 1997-2002	Tadao Ando	지상2층	연면적:14,200, 전사:4,900			○		중심홀형	복합형	절충형
48	Pinakothek der Moderne, Munich, Germany, 1992-2002	Stephan Braunfels Architects	지상3층/지하2층	연면적:33,284, 전사:12,000		○			중심홀형	복합형	선택순환
49	Contemporary Arts Center, Cincinnati, Ohio, 1997-2003	Zaha Hadid	지상6층/지하1층	연면적:7,642, 전사:1,527			○		보편형	복합형	선택순환
50	The Art Space Schaulager, Basel, Swiss, 2000-2003	Herzog & de Meuron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20,000, 전사:4,300			○		보편형	개방형	선택순환
51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1995-2004	Mario Botta, Jean Nouvel Rem Koolhaas	지상4층/지하3층 지상2층/지하3층 지상4층/지하3층	연면적:10,000 연면적:5,000 연면적:10,000			○		분동형	개방형	강제순환
52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City, Ishikawa, Japan, 1999-2004	Sejima Kazuyo & Ryue Nishizawa	지상2층/지하2층	연면적:17,093 전시면적:3,975			○		중정형	복합형	선택순환
53	Jeonbuk Province Art Museum, Korea, 2004	이상림	지상2층	연면적:6,905, 건축면적:3,918			○		보편형	홀복도형	선택순환
54	New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Korea, 1996-2005	김창일 외	지상6층/지하1층	연면적:137,201		○			중심홀형	홀복도형	선택순환
55	Seoul National Univ. Museum of Art, Seoul, Korea, 1996-2005	Rem Koolhaas	지상3층/지하3층	연면적:4,486, 건축면적:2,776			○		보편형	홀복도형	절충형
56	High Museum of Art, New Pavilion, Atlanta, USA, 1999-2005	Renzo Piano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16,400			○		보편형	연속실형	강제순환
57	Paul Klee Center, Berne, Switzerland, 2001-2005	Renzo Piano	지상1층/지하2층	전시면적:2,000, 어린이뮤지엄:600			○		분리형	연속실형	선택순환
58	Denver Art Museum 증축(Hamilton Building), Denver, USA, 2003-2006	Daniel Libeskind	지상4층/지하2층	연면적:13,564			○		중심홀형	홀복도형	선택순환
59	Gyeonggi Museum of Art, Ahnson, Korea, 2006	Guido Canalì 외	지상2층	연면적:8,278, 건축면적:5,942			○		중심홀형	개방형	선택순환
60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2001-2006	Kisho Kurokawa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48,000, 전시면적:14,000		○			중심홀형	복합형	선택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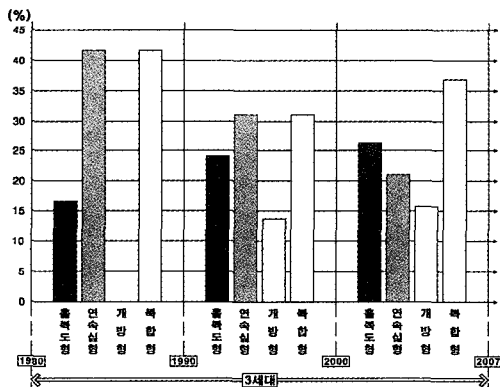
형태적 대응으로 다원화 시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60개 뮤지엄 년대별 평면구성에 따른 유형분포도

32. 뮤지엄 전시공간 구성에 따른 유형분석

<표 8>에서와 같이 전시공간 구성에 따른 유형분류에서는 복합형(G4, 24개관)과 연속실형(G2, 18개관)이 홀복도형(G1, 11개관), 개방형(G3, 7개관)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림 2> 60개 뮤지엄 년대별 전시공간 구성에 따른 유형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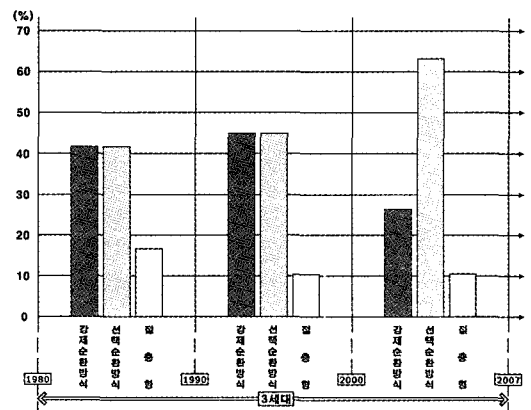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10년 단위로 본 유형분포도를 살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속실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홀복도형'과 '개방형'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복합형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10년 단위별 가장 많은 사용빈도 수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연속실형'과 '홀복도형'이 겸용된 '복합형'(24개관)이 가장 많이 적용된 전시공간구성 방법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뮤지엄일수록 '홀복도형'과 '복합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전적 전시공간구성인 '연속실형'의 경우 다양한 공간경험과 지식을 추구하는 다원화 시기의 관람객들에게 제한된 강제동선 적용의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규모에 적합한 공간구성 방안 모색의 결과라 할 수 있다.

3.3. 뮤지엄 동선구성 체계에 따른 유형분석

동선구성 체계에 따른 유형분류는 <표 8>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고전식 전시공간구성방법인 정해진 관람순로에 따라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연속실형에 의한 강제순환방식(C1, 23개관) 보다는 선택순환방식(C2, 30개관)의 뮤지엄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강제순환방식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선택순환방식을 선호하는 뮤지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전시공간구성을 통한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제공해 주고, 관람피로를 덜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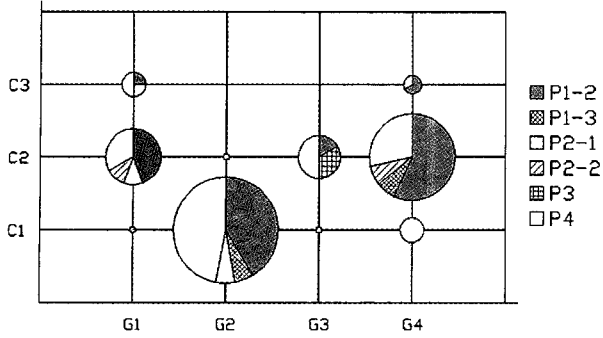
<그림 3> 60개 뮤지엄 년대별 동선구성에 따른 유형분포도

제3세대에 들어 적용되기 시작한 선택순환방식과 강제순환방식을 필요에 따라 혼용하는 절충형(C3)의 경우 제2세대까지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전시기획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동선체계 구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테이트모던갤러리(39번, 1994- 2000)는 홀복도형과 연속실형, 밀워키아트뮤지엄(42번, 1994- 2001)은 홀복도형과 개방형, 피나코텍 현대뮤지엄(48번, 1992- 2002)은 홀복도형과 연속실형의 절충형으로 나타났다.

3.4. 유형기준별 상관관계 분석

(1) 전시(G) 및 동선(C) 구분에 따른 평면(P)구성 유형별 분석

다음의 <그림 4>는 전시-동선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평면 유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4개(큰 원)의 유형조합에 대한 뮤지엄 구분은 <표 9>와 같다.



<그림 4> 전시(G) 및 동선(C) 유형에 따른 평면(P)구성 유형별 분포도

<표 9> 전시(G) 및 동선(C) 유형에 따른 평면(P)구성 유형별 뮤지엄 구분

유형조합	평면유형	해당 뮤지엄	총 개수
G1 / C2	P1-2	15, 24, 54, 58	9
	P2-1	10	
	P2-2	35	
	P4	28, 46, 53	
G2 / C1	P1-2	2, 25, 27, 37, 40, 44, 45	17
	P1-3	4	
	P2-1	34	
	P4	7, 9, 12, 14, 18, 22, 38, 56	
G3 / C2	P1-2	59	6
	P3	17, 31	
	P4	21, 23, 50	
G4 / C2	P1-2	3, 11, 32, 39, 41, 42, 48, 60	14
	P1-3	52	
	P2-2	30	
	P4	1, 6, 20, 49	

이 경우 G2/C1(연속실형/강제순환방식, 17개관), G4/C2(복합형/선택순환방식, 14개관), G1/C2(홀복도형/선택순환방식, 9개관), G3/C2(개방형/선택순환방식, 4개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강제순환방식(C1)보다 선택순환방식(C2)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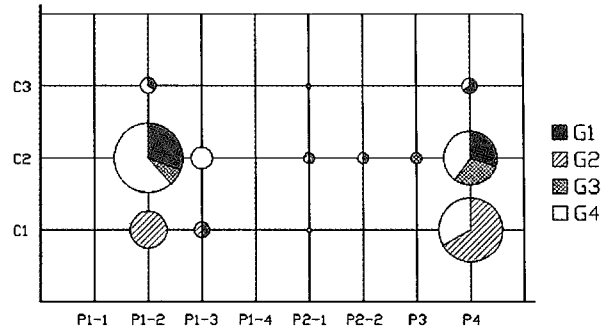
G1/C2(홀복도형/선택순환방식)조합의 경우에는 중심홀형(P1-2, 4개관)과 보편형(P4, 3개관)에서 가장 많았고, 10번(Menil Collection & Museum, 1981-87)을 제외한 총8개의 뮤지엄은 모두 1990년도 이후에 개관한 뮤지엄들로 구성되어 있다. G2/C1(연속실형/강제순환방식)의 조합에서도 특히 보편형(P4)과 중심홀형(P1-2)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G3/C2(개방형/선택순환방식)에 따른 평면유형은 집중형(P1)보다는 개방형(P3, 2개관)과 보편형(P4, 3개관)에서 많이 나타났고, G4/C2(복합형/선택순환방식)에 따른 평면유형은 중심홀형(P1-2, 8개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규모별로 보면 특대규모 5개관, 대규모 3개관으로 주로 대규모 이상의 뮤지엄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공간의 깊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평면(P) 및 동선(C) 구분에 따른 전시공간(G)구성 유형별 분석

<그림 5>는 평면-동선유형과의 상관관계에서 본 전시공간구

성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4개(큰 원)의 유형조합에 대한 뮤지엄 구분은 <표 10>과 같다.



<그림 5> 평면(P) 및 동선(C) 유형에 따른 전시공간(G)구성 유형별 분포도

<표 10> 평면(P) 및 동선(C) 유형에 따른 전시공간(G)구성 유형별 뮤지엄 구분

유형조합	전시유형	해당 뮤지엄	총 개수
P1-2 / C1	G2	2, 25, 27, 37, 40, 44, 45	7
	G1	15, 24, 54, 58	
P1-2 / C2	G3	59	13
	G4	3, 11, 32, 39, 41, 42, 48, 60	
P4 / C1	G2	7, 9, 12, 14, 18, 22, 38, 56	12
	G4	26, 29, 33, 43	
P4 / C2	G1	28, 46, 53	10
	G3	21, 23, 50	
	G4	1, 6, 2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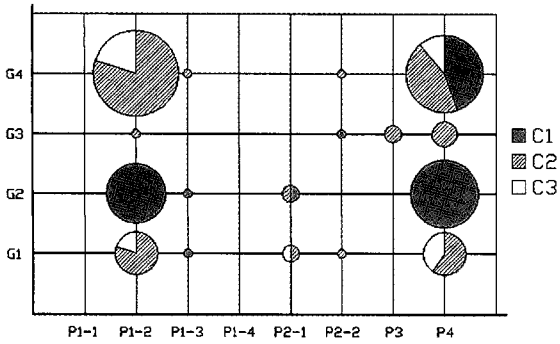
이 구분에서는 평면구성상 중심홀형(P1-2) 및 보편형(P4)과 동선체계상 강제순환방식(C1) 및 선택순환방식(C2) 간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제동선을 유발하는 연속실형(G2, 15개관)보다는 자유롭게 거닐며 선택적 관람이 이루어지는 전시유형(G1, G3, G4)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중에서도 복합형(G4) 전시공간 유형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1-2/C2(중심홀형/선택순환방식)에서도 복합형(G4, 8개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P1-2/C1(중심홀형/강제순환방식)을 통한 전시공간구성 유형은 G2(연속실형, 7개관)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뮤지엄 평면구성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시공간구성방법 중 연속실형이 가지는 공간특성의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P4-C2(보편형-선택순환방식)에서는 복합형(G4, 4개관), 홀복도형(G1, 3개관), 개방형(G3, 3개관)의 전시공간 유형이 고르게 나타났다.

(3) 평면(P) 및 전시공간(G) 구분에 따른 동선(C)구성 유형별 분석

<그림 6>은 평면-전시공간유형 구분에 의한 동선구성 유형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6개(큰 원)의 유형조합에 대한 뮤지엄 구분은 <표 11>과 같다.



<그림 6> 평면(P) 및 전시공간(G) 유형에 따른 동선(C)구성 유형별 분포도

<표 11> 평면(P) 및 전시공간(G) 유형에 따른 동선(C)구성 유형별 뮤지엄 구분

유형조합	동선유형	해당 뮤지엄	총 개수
P1-2 / G1	C2	15, 24, 54, 58	5
	C3	8	
P1-2 / G2	C1	2, 25, 27, 37, 40, 44, 45	7
	C2	3, 11, 32, 39, 41, 42, 48, 60	
P1-2 / G4	C3	13, 47	10
	C2	28, 46, 53	
P4 / G1	C3	16, 55	5
	C1	7, 9, 12, 14, 18, 22, 38, 56	
P4 / G4	C1	26, 29, 33, 43	9
	C2	1, 6, 20, 49	
	C3	5	

동선구성 유형 구분에서도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역시 '중심홀형'(P1-2)과 '보편형'(P4)이 대표적 조합유형이나 전시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개방형'(G3)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과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속실형'(G2)에 해당되는 뮤지엄은 모두 강제순환방식(C1)으로서 P1-2/G2(중심홀형/연속실형) 및 P4/G2(보편형/연속실형)에서도 모두 C1(강제순환방식) 유형을 보이고 있다.

<표 11>에서는 전반적으로 '강제순환방식'(C1, 19개관)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동선을 선호하는 뮤지엄의 수(25개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1-2/G4(중심홀형/복합형)에서도 C2(선택순환방식, 8개관)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양한 선택적 관람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P4-G4(보편형-복합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외로 C1(강제순환방식) 및 C2(선택순환방식) 동선유형이 고르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29번의 톱글리뮤지엄처럼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가가 의도적으로 강제순환방식을 채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해지는 관람자의 지적 욕구의 충족 및 뮤지엄의 사회문화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대응을 보이며 다원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제3세대 뮤지엄 건축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연구하여 실제 초기 기획설계단계에 필요한 유형별 특성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뮤지엄 건축을 크게 3세대로 구분하였고, 뮤지엄 건축의 유형분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평면구성형식', '전시공간 구성방법', '동선구성 체계'라는 분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의 분류기준에 따라 엄선된 60개의 뮤지엄(art museum)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각 유형별 특성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별 공간구성 특성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제3세대에 들어오면서 평면구성형식에 따른 유형분류는 '보편형'(P4, 25개관)과 '집중형'(P1, 26개관) 중에서 특히 '중심홀형'(P1-2, 23개관)으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중정형(P1-3), 분리형(P2-1), 개방형(P3), 그리고 규모관계상 희소성 있는 분동형(P2-2)의 유형은 사용빈도 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제1, 2세대에 시도되었던 근본형(P1-1)과 성장형(P1-4)의 모습은 사라졌다.

전시공간구성에 따른 유형분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속실형(G2)이 줄어들고 '복합형'(G4)과 '홀복도형'(G1)의 도약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복합형'(G4, 24개관), '연속실형'(G2, 18개관), '홀복도형'(11개관), '개방형'(7개관) 등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전시공간구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뮤지엄일수록 '홀복도형'(G1)과 '복합형'(G4)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선구성에 따른 유형분류에서는 '절충형'(C3, 7개관)이 제3세대부터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선택순환방식'(C2, 30개관)이 '강제순환방식'(23개관)을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공간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선택순환방식의 적용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평면구성 유형의 특성은 다양한 전시공간구성유형과 조합을 이루며 주로 '강제순환방식'보다 '선택순환방식'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시공간 구성 유형의 특성은 평면구성상 '중심홀형'(P1-2) 및 '보편형'(P4)과 동선체계상 강제순환방식 및 선택순환방식 간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제동선보다는 선택적 관람이 가능한 전시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선구성 유형 구분에서도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역시 '중심홀형'(P1-2)과 '보편형'(P4)이 대표적 조합유형이나 전시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개방형'(G3)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과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3세대 뮤지엄 건축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공간적 변화와 시도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각 유형 및 공간구성 특성과 공간 상호간의 위

상학적(topological) 관계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두 결과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이성훈, 렌조 피아노의 미술관건축 공간구성 특성연구,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7호, 1998. 12
2. 이성훈·박용환, 뮤지엄건축에 있어서 분리형 전시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5호 통권58호, 2006. 10.
3.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4.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건축, CA Press, 현대건축사, 2002
5. 현대미술관회, 현대건축의 거장들, 현대미술관회, 1988
6. 박석수·서상우, 뮤지엄 건축의 규모계획을 위한 기초적 연구; 면적배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5권, 1995. 04,
7. 심우갑, 현대건축의 거장들-루이스 칸의 작품세계, 현대미술관회편, 1988
8. Josep M. Montaner, New Museu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0
9. John Paster, Simplicity of Form, Ingenuity in the use of Daylight, Architecture, 1987. 5월호
10. E.M. Farrelly, Piano Practice-Menil Museum, Architectural Review 1081, 1987. 3월호
11. Richard Ingersoll, The Winged Ear: Renzo Piano in 1990s, 건축과 환경, 1997. 4월호
12. James S. Russell, The BEYELLER MUSEUM, Architectural Record, 1998. 5월호
13. a+u, Renzo Piano 특집, 1989년 3월 임시증간호
14. Process, 100호 기념
15. Peter Buchanan,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1997
16. High Museum of Art, Renzo Piano's Village for the Arts, High Museum of Art, Atlanta, 2005
17. Ungers, O. M., Architecture as Theme, Electa/Rizzoli, NY, 1982
18. Argan, G. C., On the Typolog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33, 1964

<접수 : 2007. 8. 26>